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

엄 훈

〈차 례〉

- I. 연구의 필요성
- II. 공론 영역 논변의 역사적 배경
- III. 공론 영역 논변의 장르적 특성
- IV. 연구의 관점과 방법
- V. 조선시대 논변 장르와 국어교육

I. 연구의 필요성

조선시대는 공론 정치가 꽃핀 시대였다. 조선시대는 양반이라 통칭되는 지식인 관료들과 예비 관료 집단인 유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공론은 국왕과 언관을 주축으로 하여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소통되었다. 비록 공론 영역의 소장(消長)과 언로(言路)의 광개폐색(廣開閉塞)에는 시기의 전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공론의 형성과 공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여일하였다.

조선시대 공론 정치의 기반이 된 공론의 소통은 언론 삼사와 통칭되는 언관의 논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언관들은 계(啓), 소(疏), 차자(劄子) 등 전통적인 상행 논증 장르를 이용하여 임금들 상대로 논변을 펼쳤으며 임금은 이에 대하여 전지(傳旨), 유시(諭示), 비답(批答) 등의 하행 장르를

이용하여 언관의 논변에 대하여 논박을 하거나 판정을 하였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임금은 원로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고 이러한 수의(收議) 과정을 토대로 임금의 최종 판정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언관을 통한 공론의 소통은 지극히 중시되었다. 언관의 언론 내용은 사관에 의해 일일이 기록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에도 언관의 언론 내용은 새로운 내용일 경우 반드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¹⁾. 이러한 연유로 조선시대의 언관의 논변은 그 소통의 맥락과 함께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언관들의 직무는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임금의 잘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인사의 적부를 논박(論駁)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기본 성격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이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²⁾.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언관들에 의해 주도된 공론 영역에서의 논증 활동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간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제도 언론에 대해 역사학계와 사회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고 제도사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언관 활동의 핵심인 논증 활동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 현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국내에서 논증 현상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논증은 논리학의 범주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형식 논리학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시대와 장(field)에 따라 변화하고 변이하는 일상 논증의 생생한 면모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

-
- 1) 「인조대왕실록찬수의례」의 실록찬수범례에 “一. 대간의 계를 수록할 때 처음의 계사는 요긴한 내용이면 모두 기록한다. 연계는 ‘連啓’라고 쓰는데, 혹 긴요한 내용이 있으면 첨부하여 쓴다. 一. 대간의 계는 사헌부·사간원이라고 쓴다. 큰 시비가 있었던 경우 논의를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쓴다. 一. 중요한 疏章은 자세히 수록하는데 문중에서 장황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오래 올리는 사직 상소는 기록할 필요가 없으나 시비가 있거나 시정에 관한 것이면 쓴다. 운운”한 것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관의 언론에 대한 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김경수(2000:177~178) 참조. 실제로 실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헌부와 사간원의 언론에 관한 기사이다.
- 2) 그 한 양상이 엄훈(2000)에 분석되어 있다.

있다. 둘째, 과거의 논증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로막아온 시간의 장벽을 들 수 있다. 논증 행위가 특정한 담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현상이라고 할 때 그 논증 행위에 대한 연구는 해당 담화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논증 행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심각한 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 자료에 대한 제한된 관점을 들 수 있다. 한문으로 기록되거나 한문으로 표현된 자료는 국어 문화의 중심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되어 왔으나 문학 장르를 제외한 경우에는 아직도 이러한 관점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 즉 한문 소설, 한시, 한문 수필은 당연히 국문학의 영역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용문의 범주에 속하는 논증 장르는 그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은 점차 극복되고 있다. 최근 논증 현상과 논증 교육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민병곤, 2000, 2001), 조선시대 연관의 언론 활동의 공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정두희, 1994; 최이돈, 1986, 1992; 최정호, 1986). 또한 제한된 관점에서이기는 하나 상행의 설득 장르에 대한 연구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⁴⁾.

한편 과거의 논증 문화에 대한 연구는 국어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요청된다. 과거의 논증 문화 연구는 전통 국어 문화의 한 갈래를 밝혀내는 일에 다름 아니며 그 결과는 현재의 국어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적 토대가 될 것이다. 국어 문화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어 문화 특히 토론 문화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대를 매스미디어의 시대, 대중 정치의 시대라 일컫지만 이런 시대에 걸맞는 토론 문화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⁵⁾. 토론 문화 미성숙의

3) 한문학의 주요 문체들인 논변(論辯), 주의(奏議), 조령(詔令)은 논증 장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문학에서는 아직 이들 장르들을 문학의 한 갈래로 고찰하고 있을 뿐이다.

4) 장덕순(1984), 염은열(1996), 최인자(2001) 참조. 이들 연구들은 논변에 속하는 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장르적 범주를 한문 수필로 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5) 우리의 토론 문화의 현주소는 『한겨레 21』 제323호(2000.8.31)에 실린 “논쟁의 종말!”

원인으로 토론 교육, 논증 교육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지만 토론 교육, 논증 교육의 부재 현상은 우리의 토론 문화, 논증 문화에 대한 연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논증 문화에 대한 지식은 현재의 논증 문화 이해의 바탕이 되며 우리의 논증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논변에 비해 뚜렷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그 대화 행위와 소통의 맥락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 행위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공론 영역의 논증 활동은 국어 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의 관점과 방법은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과 연구자가 설정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공론 영역의 논증 활동에 대한 연구의 관점과 방법은 공론 영역 논증이 지니는 본질적 속성이 부각되고 연구자의 목적이 이에 투사될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II. 공론 영역 논변의 역사적 배경

우리 나라에서 공론 및 공론의 소통에 대한 인식은 고려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 『고려사』에는 공론 및 언로에 관한 기사가 산전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 인종 때의 김부식의 일화와 고려 의종 때의 문극겸의 일화를 들 수 있다. 고려 인종이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이자겸이 임금의 외조부로서 국사(國事)를 맡게 되었다. 이에 임금이 이자겸을 신하로 칭하

이란 기사에 자세히 진단되어 있다. 즉 신문, 방송, 잡지 등 공론 영역에서의 논쟁이 노골적으로 회피되고 있으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비 걸기로 전락하고 마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찾아볼 수 있다.

지 않는다는 이해적인 조서를 내렸다. 이 때 김부식이 홀로 이자겸이 마땅히 신하의 예를 갖추어야 함을 아뢰었는데, 이자겸이 김부식의 의론(議論)을 '천하의 공론'이라 하여 따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高麗史 列傳 11 諸臣 金富軾). 또 고려 의종 때 문극겸이 좌정언으로 직언을 하다가 좌천을 당하였는데, 유사(有司)가 '문극겸은 직신(直臣)이라 외관(外官)에 연이어 좌천시켜 언론을 막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상언하여 중앙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高麗史 列傳 12 諸臣 文克謙).

그러나 고려시대의 공론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인 관념 수준의 것이었던 듯하다. 공론은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 즉 실제적인 여론이었다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준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위에서 든 김부식의 일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당시 인종은 이자겸을 다른 신하와는 달리 신하로 칭하지 않는다는 이해적인 조서를 내리고 백관들에게 의론케 하였다. 이 때 보문각 학사 정극영과 어사잡단 최유가 이자겸을 신하로 대우할 수 없다고 의론하자 "중의(衆議)가 이에 뇌동(雷同)하였다". 그러나 이 때 김부식이 홀로 이를 논박하니 이자겸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비록 무지하오나 이제 김부식의 의론을 보니 실로 천하의 公論이라.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群公이 거의 老臣을 불의에 빠지게 할 뻔하였으니 원컨대 그 의론을 좇아 의심하지 마옵소서.(말줄은 필자의 강조)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일화를 보면 당대의 공론이란 많은 사람이 옳게 여기는 의론(議論)이 아니라 사리에 명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만세에 변함이 없는 의(義)로운 의론(議論)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 시대 대간의 연사에 등장하는 공론의 개념은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공론이 특정한 장에서 형성되고 소통된다는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태조 3년 10월 정축조에 일본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에

근래에 본국의 수군 장수들이 여러 번 왜구를 사로잡고 舟師를 보내 잔당을 쳐서 잡았고 하므로 조정의 공론이 장차 허락하려던 차에 마침 좌하의 사연을 보고 중지했으니...

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 정종 2년 1월 기축조에 “대성(臺省)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과 같은 기관이요, 공론이 있는 곳이므로”라는 말이 나오며 태종 4년 12월 을해조에도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요 공론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간이 공론이 있는 곳(臺諫公論所在)이라는 말은 대간의 언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대간 논변의 강력한 논거로 자리를 잡는다. 이로부터 공론은 특정한 장에서 형성되고 소통되는 의로운 의론이라는 관념이 보편화된다.

조선시대의 공론소재에 대한 관념을 추적해 보면 공론소재의 관념이 매우 역동적으로 확장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종조에는 공론 및 공론소재에 대한 경쟁하는 두 개의 관념이 공존하였다. 대간은 스스로를 공론소재로 여겼다. 태종 4년 12월 을해에 사간원에서 올린 시무책에,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요,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양부 외에 가선대부 이하의 고신은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서출하도록 하여 백관들을 바르게 하고 선비의 기풍을 권려하소서.

하였던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임금과 의정부에서는 의정부를 공론소재로 보았으며 대간의 간쟁은 공론으로 여기지 않았다. 태종 1년 7월 경술조에⁶⁾

도승지 박석명이 (궁실 영건에 대하여)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전일에 합좌하여 궁궐을 지을 일을 의논하였는데 주상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상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營造하는 일은 공론대로 하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를 보면 임금과 의정부 대신들은 의정부에서 의논한 것을 공론이라 여겼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관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⁷⁾.

6) 이 날 사간원에서 궁실 토목 공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다가 간관이 간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공신들과 의정부에서 간곡히 아뢰어 용서를 받았다. 인용된 부분은 그 소동이 있는 직후의 대화이다.

그러던 것이 성종조에 이르면 임금과 대신들의 공론에 대한 관념이 변화한다. 성종 1년 6월 을묘에 원상 한명회가 말하기를,

“신이 들건대 근일에 대간의 말에 따라서 탐오하거나 말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령을 파면한다고 하니 이는 공론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대체에 있어서는 미편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 성종 2년 1월 무술에는 전한 벼슬에 있던 시강관 임사홍이 “대간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공론이니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아뢰었으니 이 때에 이르러 대간은 공론의 소재라는 관념은 대간만의 생각이 아니라 조정의 보편화된 관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론소재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구체적인 공론 영역의 형성과 발전을 반영한 것이었다. 훈구 대신들의 협의 기구인 의정부 대신 대간이 공론의 소재로 인정된 것은 신진 사류들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부터 조정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것이 홍문관의 언관화였다. 홍문관은 세조 9년 11월(辛未)에 양성지의 건의에 의해 설치된 이래 장서각 기능, 문한(文翰) 기능, 고문(顧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성종 19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언관화의 길이 열렸다. 홍문관의 언관화는 이전 양사 중심의 언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최이돈, 1986).

대간은 왕권과 재상권의 간섭과 전제로 인사 이동이 잦았던 까닭에 지속적인 언론 행사가 어려웠다. 대간 구성원의 잦은 변화에 따라 언론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대간 언론은 뚜렷한 한계를 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간이 대변하는 실질적인 공론 형성층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간 언론의 이러한 한계는 성종 연간에 이루어진 홍문관의 변화와 더불어 극복되었다. 성종 연간에 홍문관의 성격과 기능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홍문관은 엘리트 신진 사류의 진출 경로가 됨으로써 재상권에 대

7) 즉 “政府는 공론이 나오는 곳이니”(太宗 7년 11월 甲寅), “전하께서는 공론을 좇으시어 인신의 절개를 장려하소서.”(같은 날 의정부의 상언), “내가...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한 것은 대개 공론을 듣고자 한 것인데”(太宗 11년 8월 庚子) 등의 표현이 눈에 띈다.

향하는 신진 사류의 대표 집단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한다. 더 나아가 홍문관은 스스로 신진 사류의 진출의 경로를 장악하게 된다. 신진 사류 진출 경로 장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홍문록(弘文錄)의 작성이다. 홍문록은 과거에 급제한 유생 중에서 홍문관원의 후보자들을 미리 선발하여 기록한 것이었다. 홍문록의 작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 대상자들이 제배(濟輩)에 의해 선택되어 차천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홍문록의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배는 홍문관 관원들 특히 홍문관의 참하관(參下官)들이었다. 홍문록의 인원은 그 심술(心術) 즉 성품을 보고 선발하는데 사람의 심술은 동료만이 알므로 그 인선은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먼저 급제한 홍문관 참하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배에 의한 선발의 논거였다. 홍문록의 작성과 홍문관에 대한 성종의 우대 정책에 따라 광범위한 유생 집단으로부터 홍문관에 이르는 신진 사류의 진출 경로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하관의 공론이 형성되고 소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홍문관은 재상권에 버금가는 권위와 독립성을 획득하였으며 홍문관의 의논은 청의(淸議)라 하여 존중되었다.

또 다른 특기할 만한 변화는 홍문관의 연관화이다. 홍문관은 성종 19년을 전후하여 연관으로서의 기능을 명백히 인정받게 된다. 홍문관의 연관화의 기본 성격은 양사(兩司)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홍문관의 연관화 과정에서 홍문관은 대간 탄핵권을 획득함으로써 대간이 언책을 소홀히 할 경우 이를 탄핵할 수 있었으며 대간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홍문관과 대간의 접근은 홍문관이 대간 진출의 원천이 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원래 홍문관원의 대간 진출은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성종 22년에 이르러 홍문관원의 대간 진출이 허용된 이래 홍문관원의 대간 진출은 정례화되기에 이르렀다. 홍문관원의 대간 진출이 정례화함에 따라 성균관 유생 - 홍문관 - 대간에 이르는 신진 사류의 공론 형성과 소통의 경로가 완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홍문관은 공론의 소재로 널리 인식되었다. 성종 21년 대간이 홍문관의 탄핵으로 사직을 하자 성종이 이를 막았으나 대간들은 “홍문관은 공론이 있는 곳이라 그 나무라는 의논이 이와 같은데 신이

어찌 감히 직사에 나아가겠습니까?”〔弘文館公論所在之地 其譏議如此 臣安敢就職〕고 하여 홍문관의 공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홍문관이 공론의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대신이나 언관 이외의 일반 관료의 의논이라는 의미를 지닌 ‘외의(外議)’가 형성되어 삼사의 활동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⁸⁾. 외의는 조정 안에서 형성된 당하관들의 공론이라는 의미와 조정 밖의 유생들의 의견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하관들 사이에서 형성된 외의는 일반적으로 공론 수용기구인 대간에 의해 반영되었다⁹⁾. 유생들의 공론은 성종 말기에 이르러 성균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중종조에 이르면 성균관이 공론 소재라는 의식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선조조에 이르면 공론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지방 유생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산림 공론(山林公論)이 큰 힘을 발휘하기에 이른다.

선조초부터 권신이 배제된 사림 주도의 정치 구조가 정착하면서 공론에 의한 정치가 정립된다. 선조 8년에 이르면 조정의 공론이 나누어져 봉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공론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공론 정치의 정립은 바로 봉당 정치의 정립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은 대신이나 왕조차도 따라야 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완전히 수용되기에 이른다(宣祖 7년 6월 己未)¹⁰⁾.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공론 영역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공론 영역의 형성과 공론의 소통에서 대

8) 外議가 형성되어 반영되는 양상은 중종 3년 11월 庚申에 경연에서의 박원종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지금 문신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조정의 득실을 의논하고 대간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부중에서 발설합니다...”

9) 당하관은 조참에 참석할 자격의 유무에 따라 參上官과 參下官으로 나누어진다. 참상관은 종6품 宣務郎에서부터 정3품 당하관인 通訓大夫의 품계까지의 벼슬을 가리킨다. 참상관의 핵심구성원은 의정부와 육조의 낭관들이었는데 이들은 作會를 통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였다. 참상관의 공론은 공론 수용 기구인 대간에 의해 대변되었다. 참하관의 핵심은 홍문관,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등의 참하관들이었다. 이들 참하관들은 관료군의 모집단인 유생과 관료들 간의 연결 고리로서 자신들의 위상과 책무를 중요시하였다. 언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홍문관을 제외한 기관을 四館이라 칭하였는데 사관 중에서도 예문관이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다. 예문관 참하관의 공론은 상소를 통하여 표출되었다. 최이돈(1992) 참조.

10) 공론에 기반한 봉당 정치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영·정조 시대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순조조 이후 세도 정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론 정치는 붕괴된다.

간(成宗 19년 이후에는 三司)이 공론 수용 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은 언관들의 논증 활동이 전개되는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즉 공론 영역은 언관에 의해 주도되었던 조정에서의 공식적인 논증 행위의 문화적, 심리적인 정황을 형성하였고 논증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공론 영역은 구체적인 공론 형성층의 등장과 더불어 공론 영역 논변의 물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공론 영역은 언관 논변의 장(field)이었던 것이다.

III. 공론 영역 논변의 장르적 특성

공론 영역 논변이란 공의(公義)를 상징하는 국왕과 공론(公論)을 대변하는 언관이 주축이 되어 공식적인 공간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논증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은 언관이 주도하고 국왕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중대 사안의 경우 대신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공론 영역 논변의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언관 - 국왕 - 대신'의 삼자로 구성되었다. 공론 영역 논변은 공론의 막힘 없는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증 행위는 제기되는 사안, 참여자들의 입장, 공론 영역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 등 정황적 요구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공론 영역 논변의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관행화된 절차에 따르면 서로 자신의 목적(동기)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 패턴을 전략적으로 구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와 논증 양식이 복합적으로 동원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논증 행위는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연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공론 영역 논변은 대립되는 견해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가장 공변되고 의로운 의론(議論)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지향하는 문제 해결 지향적인 논증 행위의 통합체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은 논변의 장에 작용하는 복잡한 현실적인 권력 관계에 의하여 견해의 대립이 해소되는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공론 영역 논변은 권력과 이데올로기와 견해들이 경쟁하는, 결과를 예

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연속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공론 영역 논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와 소통 양식이 통합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공론 영역 논변은 공식적이며, 맥락 중심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며, 매체 통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녔던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들로 하여 공론 영역 논변은 '사회적 행위로서의 장르'(Miller, 1984)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론 영역 논변의 장르적 특성은 문체의 관습성(텍스트적 규칙성)을 중심으로 분류된 기존의 장르 이론으로는 그 실체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공론 영역 논변을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서의 장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장르의 재개념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 절에서는 공론 영역 논변을 다루는 기존의 장르 분류 방식을 고찰하여 그것이 지니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공론 영역 논변에 대한 맥락 중심의 장르 통합적 접근의 의의를 논하기로 한다¹¹⁾.

한자 문화권에서 논증 및 설득 장르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논증 및 설득의 문체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꽃피었으며 이들 문체의 명칭 또한 춘추전국시대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현존하는 한문 산문 문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서로는 양(梁)의 임방(任昉)이 지었다고 전하는 『문장연기(文章緣起)』,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 소통(蕭統)의 『문선(文選)』이 있다. 이 중 유협의 『문심조룡』은 대표적인 중국 고대의 문체 연구서로 34류의 문체를 표제항으로 삼고 있다. 그 중 논(論)·설(說)·장(章)·표(表)·주(奏)·계(啓)·의(議) 등이 논증과 관련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한문 산문 문체의 분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룬 것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청(淸)의 고문가인 요내(姚鼐)의 『고문사류찬(古文辭類纂)』이다. 요내는 종래 시와 문을 함께 수합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산문만을 대상으로 문체를 분류하였다. 『고문사류찬』의 13류의 문체 중 논증 및 설득의 장르에 해당하는 것이 논변(論辨), 주의(奏議), 조령(詔令)이다.

논변은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변별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상서』의 「

11) 이하 한문학의 전통적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文心雕龍』, 『墨子』 등의 자료와 심경호(1998)의 설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반경(盤庚)과 「무일(無逸)」은 이미 논변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논어』는 '논(論)'이란 서명을 붙인 가장 이른 책이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에 의해 본격적인 논변체 산문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춘추 전국의 교체기에 나온 『목자』는 논증 방법과 기교를 상당히 강구하였다. 『목자』의 「경(經)·상/하」 및 「경설(經說)·상/하」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등장하는 어휘의 개념과 내포적 의미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였으며 개념의 사용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시비를 가리고자 하였다. 또 「소취(小取)」에서는 변론의 목적과 기술, 형식과 적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고대 중국의 논증 이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¹²⁾.

논변은 의론 방식과 중점 배치의 방법에 따라 세분된다. 논(論)은 정면 논술의 문장이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의(議)·설(說)·전(傳)·주(注)·찬(贊)·평(評)·서(序)·인(引)의 8종을 모두 논에 귀속시켰다. 논은 내용이 고도로 개괄적이고 논리성이 강하며 조리가 뚜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변(辨)은 언행의 시비진위를 판별한다는 뜻이니 논박(論駁) 문체다. 원(原)은 사리의 본원을 추론한다는 뜻이다. 해(解)는 의혹을 변석하고 논란을 해부하는 문체이다. 설(說)은 설괘(說卦)에서 기원하고 한유의 「사설(師說)」과 「잡설(雜說)」, 유충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 등으로부터 뚜렷한 문체로 성립하였다. 의(議)는 조정에 일이 있을 때 신하들이 모여 상의(廷議)해서 주의(奏議)를 올린 일에서 기원하는데 이후 사의(私議)가 논변 문체로 성립하였다.

주의는 조정에서 신하가 정무를 아뢰는 공용 문체이다. 『문심조룡』에 따르면 춘추시대에는 제후가 조배(朝拜)할 때 엄격한 격식에 따라 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왕의 미덕을 예찬하거나 제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하였으며 문자로 나타낼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공경이 제왕에게 정사를 진술하면서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상서(上書)라고 하였다. 한대에 이르러 장(章)·주(奏)·표(表)·의(議)의 네 부류로 나뉘어 지고 한대 이후 이 네 부류 외에 소(疏)·서(書)·봉사(封事)·찰자(札)

12) 『목자』 이후 전국시대 중엽의 『맹자』와 『장자』도 논변체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또한 전국시대 후기의 『순자』와 『한비자』 또한 논변문의 구조와 논변 기교를 발전시켰다. 심경호(1998), 「논변체 산문」 참조.

子)·탄사(彈事)·전(牋)·대책(對策) 등이 나왔다. 모두 상행(上行)의 문체로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에서 자주 이용되었던 소(疏)와 차자(劄子)의 형식도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소는 조목을 나누어 진술한다는 뜻으로 『한서』에 그 유래가 전한다. 차자는 찰자(札子)라고도 쓰는데 찰은 글자를 적는 데 이용한 작은 목편으로 이로부터 서신과 공문을 찰이라 하였다.

조령은 제왕의 통고 문건이다. 주의가 상행 문자인데 비하여 조령은 하행 문자이다. 『상서(尙書)』에 고(誥)·명(命)·서(誓) 등의 명칭이 나온다. 조령문은 주·진으로부터 명·청에 이르기까지 그 명칭이 다양하다. 고(誥)는 고(告)와 같은 것으로 아래로 발하는 것이다. 조(詔)는 신하와 인민에게 밝혀 보여준다는 뜻이다. 명(命)과 영(令)은 조(詔)와 비슷하되 관리를 명하거나 작위를 봉할 때, 상벌을 내릴 때 사용한다. 영은 구두 명령, 명은 성문화된 법령이지만 엄격한 구분은 없다. 유(諭)는 고(告)란 뜻으로 임금의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는 말이다. 교(敎)는 백성들이 참조하여 따르도록 위에서 훈시한다는 뜻이다. 비답(批答)이란 신하가 바친 글에 제왕이 논평하여 답하는 글이다.

이상의 세 가지 대표적인 거시적 논증 장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교차되는 일이 흔하다. 특히 주의체는 임금을 상대로 한 논변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문체 분류의 기준에 기인하는바 논변체가 소통의 방향보다는 주로 논증의 방식에 따라 분류된 것이라면 주의체와 조령체는 각각 상행과 하행의 소통 방향과 소통의 목적을 위주로 하여 분류된 것이라는 변별점이 있다.

그런데 현대의 한문학자들도 거의 그대로 따르는 이상의 논증(설득) 장르 분류는 강한 문학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한문학에서의 논증 장르 분류는 실제적인 소통의 맥락보다는 텍스트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공용성보다는 문학성을, 실용성보다는 미학적 특성을 중시하다보니 논증 장르의 원류가 망각되었던 것이다. 원래 한자 문화권의 전통에서 문(文)·사(史)·철(哲)은 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문체의 공용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후대의 장르 구분의 원류가 되는 고대의 전적들과 고문들은 공용성과 실용성이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산문의 원천이라고 할

『상서』에는 전(典)·모(謀)·훈(訓)·고(誥)·서(誓)·명(命)의 여섯 가지 공문 문체가 분류되어 있다. 『주례(周禮)』에도 사(祠)·명(命)·고(誥)·회(會)·도(禱)·뇌(誥)의 여섯 가지 문체를 지어서 상하·친소·원근을 통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한의 채옹(蔡邕)은 『독단(獨斷)』에서 제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훈령을 책서(策書)·조서(詔書)·제서(制書)·계서(戒書)로 나누고 신하가 제왕에게 올리는 글을 장(章)·주(奏)·표(表)·박(駁)·의(議)로 나누었다(심경호, 1998:127). 고대 한자 문화권의 장르 구분의 시작은 공공의 장에서 소통되는 담화 양식을 분류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여기서 한자 문화권의 장르 분류에서 공공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문 장르는 기원적으로 조정에서 임금과 더불어 공사를 논할 때 사용된 소통의 양식들이었다. 즉 조정이라는 공공의 장에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하간에 소통된 담화 양식들이었다. 따라서 고대의 한문 장르는 텍스트보다는 맥락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즉 문어 텍스트의 규칙성보다는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가', '소통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같은 맥락이 장르 구분의 준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대의 소통 장르는 기원적으로 구어 장르였으며 문어가 중시된 후대에도 오랫동안 구어 매체와 문어 매체가 통합적으로 사용되었다¹³⁾. 고대 한자 문화권의 논증(설득) 장르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담화였으며 실용적인 동기를 지닌 사회적 행위였던 것이다.

고대 논증(설득) 장르의 이러한 특성은 1970년대 이래 미국과 호주의 작문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르 연구(genre studies)에서 재개념화된 장르의 특성과 거의 동일하다. 서구의 장르 연구가들은 맥락 의존적이고 실용적인 장르 관습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문학 중심, 텍스트 중심의 전통적 장르를 비판하고 장르를 재개념화하였다. 즉 전통적 장르는 (a) 기본적으로 문학적이며, (b) 전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상의 텍스트적 규

13) 위의 주의(奏議) 및 조령(詔令)에 대한 설명 참조. 주의와 조령보다 후대에 발생하는 논변(論辯)의 경우에도 기원적으로 구어 양식과 문어 양식이 통합되어 있었다. 유협의 『문심조룡』에 따르면 논변의 주요 양식의 하나인 변(辨)은 변설(辯說) 즉, 설득하는 말을 가리키는데, 변설은 전국시대에 구름처럼 일어난 변사(辯士)들의 유세(遊說)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문심조룡』 論說 第十八 참조.

칙성에 의해 정의되며, (c) 고정불변적이며, (d) 깔끔하고 경계가 뚜렷한 범주들과 하위 범주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재개념화된 장르는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유형화된 수사적 행위로 정의된다. 또한 새로운 장르 개념은 그 역사성이 강조된다. 장르는 유동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장르는 진화하고 발달하며 소멸한다(Miller, 1984). 새로운 장르 개념은 그것의 사회적 맥락에 응하여 사회적 동기(social motives)를 강조한다. 장르는 추상화된 규칙성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소통 행위이며 텍스트 유형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유형화될 수 있는 수사학적 참여로 재정의된다(Freedman, and Medway, 1994)¹⁴⁾.

공문(공공 담화)의 범위를 벗어나 문체 분류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조비(曹丕)의 『전론논문(典論論文)』이다. 조비는 “주(奏)와 의(議)는 전야(前夜) 하고 서(書)와 논(論)은 이치를 갖추어야 하며 명(銘)과 간(諫)은 실정에 맞아야 하고 시(詩)와 부(賦)는 고와야 한다”고 하여 한문 산문이 갖추어야 할 문학성을 논하였다(심경호, 1998:127~128). 이후로 한문 산문의 문체 분류에서 문학적 편향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실제 맥락 속에서의 설득과 사리분별이라는 논증 장르의 본래적 기능보다는 텍스트가 지니는 미학적 속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논증 장르에서 실제적인 맥락이 사라지고 문학적 향유의 대상으로서의 텍스트만 남게 되었다.

한문학의 문체 분류에서의 이러한 문학적 편향성으로 하여 한문 산문은 문학 장르의 틀 안에서 연구되었으며 이로부터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논증의 실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담화는 학문적 고찰의 범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공공 담화의 분류에서 출발한 장르 분류는 문학 장르의 분류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실제적인 공론 소통의 기능을 고려의 대상에

14) 흥미로운 것은 실용성이 강조된 맥락 중심적인 장르 관념은 고대 서양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세 가지 논증 장르를 구분한 바 있다. 토론적 장르(의회), 재판적 장르(법정), 참언적 장르(의례)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르 구분에서 정황을 기반으로 하여 형식과 내용이 통합되어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서 보이는 편향과 유사하게도 논증 행위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맥락 중심적인 장르론적 고찰은 그 원형이 이어지지 못하고 문학적 장르 구분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서 제외하였고 이러한 편향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진 시대 이후 한자 문화권에서의 장르 논의가 문학적 편향성을 띠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추전국시대에 그 기원이 보이는 조정에서의 논증 장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송 시대에 이르러 언론을 직책으로 삼는 전문적인 언관이 출현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⁵⁾.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에 대간 제도가 성립함으로써 조정에서의 공식적인 논증 행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언관 제도는 중국 당송의 언관 제도보다 질적으로 한층 발달된 것이었다. 고려와 조선의 대간 제도에서 볼 수 있는 '논집시정(論執時政)'과 '교정풍속(矯正風俗)'은 중국 당송의 제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언론 영역이었다. 특히 논집시정은 우리나라 대간 제도만의 특성이었다(김경수, 2000:103). 조선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성종 이후 홍문관이 언관화함에 따라 삼사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언관의 언론이 양과 질의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¹⁶⁾.

공공의 논증 장르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증 장르에 대한 한문학의 논의는 점점 더 논증 장르의 본령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종조에 서거정에 의해 편찬된 『동문선(東文選)』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들 수 있다. 『동문선』에는 500명 가까운 작가의 54종에 이르는 문체가 망라되었는데 이 중 시(詩)보다는 문(文)에 문(文)에서도 정교와 의례성 문장에 비중이 두어졌다. 문 중에서도 조칙(詔勅)·교서(敎書)·제고(制誥)·비답(批答)·주의(奏議)·차자(劄子)·첩(牒)·책제(策題) 등 공용성이 강한 문장과 책(冊)·표전(表箋)·장(狀)·송(頌)·치어(致語)·축문(祝文)·소(疏)·도량문(道場文)·재사(齋詞)·청사(請詞) 등 의례성이 강한 문장

15) 중국의 대간 제도는 그 기원이 멀리 周代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시정의 득실이나 군왕에 대한 간쟁을 실질적인 직무로 하는 언관으로서의 대간이 출현한 것은 당송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대관이 언관으로서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지니게 되는 것은 송 眞宗 天禧元年(1017)이며 간관이 간쟁을 뚜렷한 직무로 삼게 된 것은 隋代에 이르러서이다. 박용운(1980) 1장 참조. 대체적으로 당송 시대에 대간의 언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시기의 대간의 일화가 정전처럼 자주 인용되곤 한다.

16)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종실록에 보이는 대간 언론 관련 기사는 성종 25년간 연평균 224회에 이른다.

이 많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공용문의 제작을 중시하였으므로 순수한 문학을 전문으로 삼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문학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현과 홍만종은 『동문선』이 선(選)이 아니라 유취(類聚)라고 비판하였고 김중직은 별도로 『동문수(東文粹)』를 편찬하였다고 한다(심경호, 1998:142~3).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이 공식적이며, 맥락 중심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고, 매체 통합적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이러한 공공 담화의 특성은 고대 한자 문화권의 장르 구분의 관점에 따라 접근할 때 가장 명료하게 부각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맥락 중심적인 사회적 행위로서의 장르 개념은 1970년대 이래 서구에서 발전되어온 장르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의 논변은 공론의 소통과 반영이라는 사회적 동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소통되었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은 다양한 맥락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공론 영역의 소장과 더불어 발생하고 발전하고 소멸하였다.

IV. 연구의 관점과 방법

조선시대 공론 영역에서의 논변이 공식적인 장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논증 장르였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 이러한 담화 장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위(대화)로 고려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에서 이루어진 논변은 조선왕조실록에 기사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연관 논변 기사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록된 대상이 된 것은 논증의 성격을 띤 대화 행위였다. 연구자는 역사 기록의 대상이 된 논증적 대화 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하여 논증적 대화 행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연구의 예비 단계로 요청된다.

(2) 논증적 대화 행위 분석의 기본 단위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논증적 대화 행위는 구체적인 정황과 동기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행위가 통합되는 기본 단위들로 분석되어야 한다.

(3) 장르의 관습성이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공론 영역의 논변이 장르로 인식되는 것은 그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르 관습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론 영역 논변의 장르 관습성으로는 논변의 소통 구조, 논변의 소통 양식, 관습화된 논증 절차, 논거의 유형이나 추론 방식, 관습화된 표현 방식 등이 있다.

(4) 논증의 문화적 특성이 당대인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논증은 대립되는 견해의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속성을 지니므로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없이는 성립하기 힘들다. 그런데 한 시대의 합리성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의해 구성되며 당대인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유된 신념이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사고 방식도 당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 특정한 담화 공동체의 논증 행위는 그 시대 해당 담화 공동체의 합리성에 의해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과 방향을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다음에 인용할 자료는 성종 4년 1월 12일(癸卯)에 있었던 사간원 대사간 성준 등의 상소와 이에 대한 원상(院相)들의 의논에 관한 기사이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이 기사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단락의 구분 없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대화 분석의 기법에 따라 재구성된 자료를 제시한다. (원 자료의 내용과 기술 방식은 각주의 한문 원문 참고¹⁷⁾) 아래의 대화 분석의 기호 중 ‘# #’는 논증적 대화에 대한 사

17) 〈原文: 영인본 조선왕조실록 9집 2~3면〉

○ 司諫院大司諫成俊等 上疏曰 臣等俱以不才 職忝言責 未嘗有所獻替 上神聖德 惟尸素是惧 謹爾時事 冒昧以聞 一 殿下臨御以來 日御經筵 詢咨治道 從諫敕疏 而近者凡言官所啓 屢問先發言者 臣等竊以爲此非所當問也 夫臺諫之設 所以爲言也 當議事之時 或有一人先出其議 衆從而和之者 或有衆議 皆然 不謀而同者 或非親見其事而得之友朋言語之間者 或以意料所及 不敢含默而發之 故不可指某爲先發言 假使有先發言者 亦不必事事 皆審其根因然後 發之也 若使嫌於言根之間 非所目見 不以發言 則言官議事 有所不周 而朝廷之得失

관의 해설이며 ‘숫자 이름:’은 말차례와 참여자를 나타낸다.

#시간원 대시간 성준 등이 상소하였다.#

- 1 성준 등: 신등은 모두 재주 없는 몸으로 벼슬이 言賁을 욕되게 하고 있으면서도 獻 替¹⁸⁾하여 위로 성덕을 도운 적이 없고, 오직 尸素¹⁹⁾할 뿐인 것이 참으로 송구합니다. 삼가 時事를 조목으로 들어서 분별 없는 소견을 함부로 아뢰니다.
- 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治道를 물으시고, 물이 흐르듯이 간언에 따르셨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무릇 언관이 이룬 바에 대하여 앞서 발언한 자를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신등은 이는 마땅히 물으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대간을 두는 것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을 의논할 때를 당하여 혹은 한 사람이 먼저 의논을 내고 못사람이 따라서 和同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못사람의 의논이 다 그렇게 여기므로 꺾이지 않고서도 화동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일을 친히 보지는 않았으나 벗들이 말하는 사이에 아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생각이 미쳤으므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발언하였다고 가리킬 수 없으며, 먼저 발언한 자가 있다는 치더라도 반드시 일마다 다 그 근거를 알아 본 뒤에 발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말의 근거를 캐어 묻는 것을 싫어하여 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발언하지 않게 한다면, 언관이 일을 의논함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조정의 득실과 백성의 休戚²⁰⁾이 어떤 것은 전하의 앞에까지 이르지 못하니, 충직한 말을 구하고

生民之休戚 或者無由至于 殿下之前 求言聽言之道 恐有所未盡也 願殿下更加三思 以廣言路 (中略) 命院相議之 第一條鄭繼出議 古人云 責以必窮之辭 問以難對之狀 此言可觀 鄭昌孫曹錫文議 宋吳奎爲諫官 有御史言事 非其實者 詔詰問從誰受奏 若求主名 則後莫有以告御史者矣 是自蔽塞其耳目也 上立罷不問 彭思永發大臣陰事 問其所從來三問 思永曰風聞者 以廣聰明也 今必問其所從來 因而罪之 寧甘重譴 不敢廢國家開言路之法 今若問其先發言 則臺諫雖有所聞 嫌其詰責 莫先發舉 請從所啓 (下略)

조선왕조실록은 하나의 기사가 시작될 때마다 ○ 표시를 하고 있다. 원문의 편집에서 흥미로운 것은 임금을 지칭하는 말이나 임금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반드시 한 자 정도의 여백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실록의 기사를 국역할 때는 임금과 임금의 지칭에 대해 존대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에 옮겨 놓은 원문 기사에서는 해석의 편의상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 조선왕조실록에 표시해 놓은 구두점 부분에서 반각을 띄어주었다.

- 18) 善을 취하고 惡을 버림. 곧 임금을 돕는 것을 말함.
 19) 『漢書』朱雲傳에 나오는 ‘尸位素餐’이란 말로, 능력이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 것 자리만 차지하고 祿만 받아먹음을 비유한 말.
 20) 기쁨과 슬픔.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에 미진한 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더 깊이 생각하시어 언로를 넓히소서.

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권장하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하시니 (중략)

一. 신등이 가만히 말씀드리건대 곡식이 나는 땅은 많아지지 않았는데 재상(災傷)은 근래 더욱 심하니(중략)

一. 국가에서 공신에게 각각 丘史를 내려 주어 (중략)

一. 국가에서 選上奴婢 신역이 고된 패단을 염려하여 (중략)

#원상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제 1조에 대하여 정인지가 의논하였다.#

2 정인지: 옛사람이 이르기를, '궁색한 말(必窮之辭)을 책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정상(難對之狀)을 묻는다.' 하였거니와, 이 말은 가관입니다.

#정창손과 조석문이 의논하였다.#

3 정창손-조석문: 송나라의 오규가 간관으로 있을 때, 어느 御史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었으므로 황제가 불러서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규가 아뢰기를, '主名²¹⁾을 대라 한다면 앞으로는 어사에게 고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 이목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하니 임금이 즉시 그만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팽사영이 대신의 숨은 일을 드러냈는데, 그 근원을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팽사영이 말하기를 '풍문이란 것은 총명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풍문의 근원을 물어서 이로 인하여 죄를 준다면, 차라리 중벌을 달게 받을지언정 감히 국가에서 언로를 여는 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앞서 발언한 자를 묻는다면, 대간이 들은 것이 있더라도 그 힐책받는 것을 꺼려서 먼저 드러내어 거론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아뢴대로 따르소서.

#제 2조에 대하여 정인지가 의논하였다.#

4 정인지: (하략)

이 기사에는 기록자의 말(해설)과 기록된 사건이 나온다. 기록된 사건에는 정황과 참여자와 참여자의 행동이 있다. 참여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사간원 대사간 성준 등이 언근 추핵(言根推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소견을 조목별로 밝히는 상소를 한다. ② 임금이 이에 대하여 원상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③ 원상들이 조목별로 의논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참여자들의 행동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료를

21) 주창한 사람의 이름. 주로 지목할 만한 사람의 이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참여자들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며(논제를 제기하는 사람, 자문에 응하여 의논하는 사람, 판정하는 사람 등) 참여자의 행동에 어떤 절차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요청 - 자문 - 결정) 만약 다른 기록물을 통하여 참여자의 역할이나 행동의 절차에 일정한 규칙성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장로적 관습성의 일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자료는 여러 참여자들이 한 번 만나서 이루어진 소통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면대를 제외한 임금과의 모든 의사소통은 승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간원 대사간 성준 등의 명의로 올라간 소(疏)는 사간원의 모든 관원이 연명으로 올린 소였을 것이다. 사간원의 연명 상소는 승정원을 통하여 즉시 임금에게 전달되고 사간원의 연명 상소를 검토한 임금은 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하여 원상들²²⁾에게 상소의 각 조목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원상들은 상소에서 언급된 각 조목에 대하여 의논하여 견해를 임금께 아뢰었다. 이 때 사간원의 상소에서 제기된 조목은 ① 품문공사에 따른 언근 추핵을 하지 말 것, ② 대신의 범법을 엄히 다스릴 것, ③ 봉록의 지출을 줄일 것, ④ 공신에게 지급한 구사를 엄격히 관리할 것, ⑤ 경중과 외방의 노비의 신역을 줄여 줄 것 등의 다섯 항목이었다. 원상들은 각 조목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참여자들이 한 번 만나서 시작되고 종결되는 '소통 행위' 단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소통 행위는 단일한 화제를 지닌 단일한 논변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수의 논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우리는 위의 사례에서 다섯 개의 단위 논변이 하나의 소통 행위 안에 짜여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단위 논변은 하나의 화제 또는 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립적인 논변의 최소 단위이다. 단위 논변은 참여자들의 말차례 연쇄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소통 양식이 정황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품문공사에 따른 언근 추핵 문제를 논하는 단위 논변의 경우 세 차례의 말차례가 연쇄되며 상소(上疏), 하문(下問), 주의(奏議)라는 소통 양식이 동원되었다.

22)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졌던 성종초에는 원상 제도가 있어서 원상들이 상시적으로 임금의 자문에 응하였다. 당시 원상으로 임명되었던 원로 대신은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최항, 홍윤성, 조석문, 김질, 윤자운, 김국평이었다.

한편 언관에 의해 이루어진 논청(論請)이 한번의 소통 행위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통 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들 이상의 소통 행위가 동일한 정황적 프레임 안에서 연속될 때 이를 소통 행위 연쇄라 칭할 수 있다.

이제 위의 소통 행위 속에 있는 첫 번째 단위 논변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자. 사간원의 언관들은 언관의 발언에 대하여 그 말의 뿌리를 캐어묻는다면 언로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하여 언근 추핵을 하지 말 것을 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상들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인지는 '궁색한 말을 책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정상을 묻는다'는 옛사람의 말을 논거로 삼아 언근 추핵에 반대하는 언관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반면 정창손과 조석문은 언근 추핵에 반대하여 직간한 송나라의 간관의 고사를 들어 언근 추핵이 언로를 막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사간원의 주장을 따를 것을 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 단위 논변을 통하여 풍문공사(風聞公事)라는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의 특이한 문화 현상을 접할 수 있다. 풍문공사란 언관이 풍문에 근거하여 관리를 탄핵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풍문 탄핵의 허용 여부와 풍문 탄핵에 따른 언근 추핵 문제는 조선 전기 공론 영역 논변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특히 대신이 풍문에 의해 탄핵되는 경우 이러한 풍문 탄핵에 대하여 대신이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에 논사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임금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라도 말의 뿌리를 캐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언근 추핵은 공론을 대변하는 언관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대간의 끈질긴 주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었으며 성종조 말에 이르면 풍문공사가 언관의 당연한 권한으로 여겨지기에 이른다.

대간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풍문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요 대신들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거한 풍문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형성된 공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언관들은 공론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끝내 풍문 탄핵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에서의 풍문공사는 현대의 합리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당대의 합리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당대 풍문공사와 관련된 논증은 풍문도 공론이라는 당대의 가치 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논거의 강력함의 정도나 추론의 건전성에만 의존할 경우 정당한 해석과 평가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밝혀내고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의 본질적인 속성은 그것에 대하여 장르론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잘 포착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또한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공론 영역 논변에 대한 장르론적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개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시론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실제 논변 자료에 대한 확장된 고찰과 논증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조선시대 논변 장르와 국어교육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의 장르론적 면모에 대한 구체화된 연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 장르에 대한 연구와 국어교육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조선시대의 논변 장르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조선시대의 논변 장르를 가르친다면 무엇을 소재로 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논증을 사회적 행위로 파악하고 장르론적 관점에서 논증 교육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앞서서 전개되고 있다(Andrews, 1989). 그러나 이 때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논증 장르는 현재 통용되는 논증 장르이다. 과거의 논변과 현재의 논변은 사회적 행위로서의 장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과거의 논변은 과거 일정한 시기 동안 발생하여 발전하다가 지금은 소멸하여 버린 장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를 요한다. 살아 있는 논증 장르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제반 미시적 논증 장르들의 관습성을 습득하여 논증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과거의 논증 장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논증 장르의 교육적 가치는 실제적인 목적 달성을 중시하는 기능적 문식성의 차원에서는 포착되기 어렵다. 과거의 논증 장르 교육의 가치는 논증(설득)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그를 통하여 인간의 합리적인 설득 행위에 대한 폭넓은 문화적 통찰력을 획득하는 차원, 즉 문화적 문식성의 차원에서 찾아져야 한다.

문화적 문식성의 차원에서 과거의 논증 장르 교육의 가치를 논할 때 과거의 논증 장르 교육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거의 논증 장르는 논증 현상을 이해하는 고전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논증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는 논증 능력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논증 문화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획득하는 토대가 된다. 논증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기초적인 논증 분석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논증 분석의 자료는 현재의 논증 활동 자료뿐 아니라 과거의 논증 장르로부터도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통적인 논증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논증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의 획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논증 행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형성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장에서 논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였던 과거의 논변 전통에 대한 교육은 공론 영역에서의 토론의 전통이 서구에서 유래하였으며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유입되어 접맥되었다는 문화적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근대 개항기에 민중 주도로 일시에 활짝 피어난 근대적 공론 영역이(김향, 1998) 조선전기에 형성되어 선조조 이후 전국의 유림들에게까지 확장된 중세적 공론 영역의 전통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과거의 논증 장르 교육을 통해 논증 행위가 특정한 담화 공동체의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논증 행위에 대한 문화 상대주의적 통찰을 획득할 수 있다. 논증 문화는 시대에 따라, 종족에 따라, 그리고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양한 논증 문화에 대하여 현대적 편견, 자문화 중심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대주의적 시각을 획득할 때 인간의 논증 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과거의 논증 장르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은연중에 사로잡히기 쉬운 문화적 편견을 교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공론 영역의 논변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학습 자료의 제시와 학습 활동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 자료의 제시면을 살펴보자.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의 교육적 가치를 문화적 문식성에서 찾는다면 그것의 실제 양상을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의 사례 중 전형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사건(소통 행위 또는 소통 행위 연쇄)을 소재로 선택하되 원 자료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논증적 대화 행위로 재구성된 자료를 학습 자료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전형성이라는 선정 기준은 당대의 공론 영역의 논변의 양상을 대표할 만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대의 모든 논변 자료를 섭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정된 자료가 당대의 논증 문화에 대한 대표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성이라는 기준은 소재 자체가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큼 흥미진진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문제 상황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자료는 논증적 대화 행위로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증적 대화 행위로의 재구성 방식은 정황에 대한 해설과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본(스크립트)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까닭은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이 특정한 정황적 맥락에서 특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진 대화 행위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화 행위는 다양한 구어 및 문어 소통 양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본 형식은 이러한 대화 행위의 본질을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화 행위로 재구성된 과거의 논변 자료를 대상으로 한 학습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논변 문화 읽어내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화 읽어내기란 해석적 문화 이론에서 말하는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의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해석적 문화 이론에서는 문화 현상을 중층적인 의미의 그물 같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문화에 대한 해석의 과정은 중층적인 기술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²³⁾.

23) 조한옥은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두껍게 읽기'로 묘사하였다. 문화 해석의

즉 논변 문화 읽어내기는 크게 논증적 대화의 장르 관습성의 차원과 그것의 합리성의 토대를 이루는 당대인의 관념 세계(mentalité)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장르 관습성의 차원에서는 소통의 구조와 소통 절차, 소통의 양식, 논거의 유형과 논증 도식, 표현상의 특징 등이 문화 읽어내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대인의 관념 세계의 차원에서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의 공론 영역에 대한 인식이 문화 읽어내기의 대상이 된다. 공론 영역 참여자들의 관념 세계는 공론 영역 논변 참여자들의 공감의 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공론 영역 논변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 물론 교실에서의 문화 읽어내기의 과정은 대상 자료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교사에 의해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자료

- 『국역역주고려사 CD-ROM』, 동방미디어주식회사, 2000.
 『국역조선왕조실록 CD-ROM』, 동방미디어주식회사, 2000.
 『묵자(墨子)』, 박재범 옮김, 홍익출판사, 1999.
 『신편 경국대전』, 윤국일 옮김, 신서원, 1998.
 『朝鮮王朝實錄』9(成宗實錄 26-102卷),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探究堂, 1986.

▶ 논문 및 단행본

- 김 향(1998), “구한말 근대적 공론영역의 형성과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수(2000),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가람기획.
 민병곤(2000), “신문 사설의 논증 구조 분석”, 『국어국문학』127집, 국어국

과정은 여러 겹으로 적층되어 있는 의미의 차원을 한겹 한겹 벗겨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한욱(2000:들어가는 말) 참조.

문학회.

민병곤(2001),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12집.

박용운(1980), 『고려시대 대간 제도 연구』, 일지사.

심경호(1998),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엄훈(2000), “조선 성종대 토론 문화 연구”, 『국어교육』 10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염은열(1996),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劉繼, 최신희 옮김(1990), 『文心雕龍』, 현암사.

장덕순(1984), 『한국수필문학사』, 박이정.

정두희(1994), 『조선시대의 대간 연구』, 일조각.

최이돈(1986), “성종대 홍문관의 언관화 과정”, 『진단학보』 61집.

최이돈(1992), “16세기 공론정치의 형성 과정”, 『국사관논총』 34집, 국사편찬위원회.

최인자(2001), “상소문의 설득 문화와 유교적 질서”,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최정호(1986), “조선조 공론권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7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Andrews, R.(ed.)(1989), *Narrative & Argument*, Open University Press.

van Dülmen, R.(2000), *Historische Anthropologie: Entwicklung, Probleme, Aufgaben*, 최용찬 옮김(2001),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van Eemeren, F. H., and R. Grootendorst(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van Eemeren, F. H., R. Grootendorst, S. Jackson, and S. Jacobs (1993), *Reconstructing Argumentative Discourse*,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van Eemeren, F. H., R. Grootendorst, F. S. Henkemans et al.(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Freedman, A., and P. Medway(1994), *Genre and the new Rhetoric*, Bristole PA: Taylor & Francis.
- Freedman, A., and P. Medway(1994), *Learning and Teaching Genre*, Portsmouth, NH: Boynton/Cook Publishers.
- Habermas, J.(1961), 한승완 옮김(2001), 『공론장의 구조 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 Paltridge, B.(1997), *Genre, Frames and Writing in Research Setting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초록〉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

엄 훈

조선시대 공론 영역 논변은 공의(公義)를 상징하는 국왕과 공론(公論)을 대변하는 언관이 주축이 되어 공식적인 공간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논증적 대화를 가리킨다. 공론 및 공론의 소통에 대한 인식은 고려시대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구체적인 공론 형성층이 등장한 것은 조선 전기 이후이다. 공론 영역에서 소통된 논증적 대화는 한자 문화권에 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다양한 담화 양식과 매체가 통합된 거시적 논증 장르이다. 공론 영역 논변은 참여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중의 하나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문제 해결 지향적인 대화의 과정이었다.

공론 영역에서의 논증적 대화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1) 연구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위로서의 대화의 기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사회적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대화 분석의 기본 단위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3) 논증적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장르 관습이 확인되어야 한다. (4) 당대의 합리성의 기반 위에서 장르의 문화적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간의 다양한 설득 행위에 대한 문화적 통찰력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통적 논증 장르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는 스크립트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수 학습 활동의 초점은 중층 기술의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화 읽어내기에 두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어】 공론 영역, 논증적 대화, 공론, 논증 장르, 장르 관습,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통찰력

〈Abstract〉

A Generic Approach to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of Joseon Dynasty

Um, Hoon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of Joseon dynasty was a macro genre as social action in which various communication media and discourse types were compounded. It was a kind of problem solving activity in which various standpoints were presented. The disputant standpoints competed openly and one of them was decided as a policy. The discourse types such as sangso [上疏, sangchaja [上笏子], gye [啓], ui [議], gyo [教], bidap [批答] and so forth were used in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They dated back to Han dynasty of China and developed through the period of Goryeo and Joseon. It can be said that the genre conventions of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were inherited, developed, changed, and disappeared.

It is suggested that the study on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should take such things into consideration:

(1) the data basically should be considered as documents of social action(dialogue). So the social action should be reconstructed from the data. (2)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ocial action, the basic units of discourse analysis should be identified. (3) the genre conventions should be identified in the context of the argumentative dialogue. (4)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should b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e reasonableness at that time.

The result of generic approach to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of Joseon dynasty has educational value. The knowledge of traditional argumentation genre helps students to develop their cultural identity and an insight into the various human activities of persua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material of traditional argumentation genre is presented in the form of script. The teaching/learning activity should concentrate on reading culture.

【Key words】 public sphere, argumentative dialogue, public opinion, argumentation genre, genre convention, cultural identity, cultural insight